

총선, 1년 3개월 앞으로

공천권을 국민·당원에게로

한나라 이어 민주당도 국민참여 경선 도입

공천개혁 가속도...지도부 반대 진통 불가피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도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를 폐지하고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하는 등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영향력을 크게 줄이는 내용의 공천제도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천정배) 산하 공천분과위는 당 안팎의 인사들로 예비후보자직선심사위를 구성, 후보군을 2~4배수를 압축한 뒤 당원 50%, 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꾸려 경선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는 현행 공천심사위를 없애고 '당원+국민'경선 방식을 도입, 지도부가 행사해온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공천을 통해 줄세우기 또는 나눠먹기식 계파정치 폐해를 없애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공천분과위는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당 대표의 전략공천권(30% 이내)을 폐지하고 지역구 공천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흥행 제고를 위해 청년·여성 비례대표의 경우 '슈퍼스타 K' 방식의 지역별 순회 공개경쟁을 진행하는 한편 영남권 등 취약지역 출신 할당제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천분과위원장인 문화진 의원은 이날 "큰 방향은 잡혔으나 선거인단 구성 비율이나 전략공천 부분 등은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특위는 분과위 논의가 끝나면 대로 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중 최고위원회의에 공천개혁안을 보고,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위원장 나경원 최고위원)도 공심위를 없애고 '공천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예비후보들의 자격을 심사한 뒤 개방형 선거인단(책임당원 20%, 일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을 구성해 경선을 치르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공천

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는 계량화된 평가지수를 적용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후보자를 3인 이내로 압축하게 된다. 공천 완료 시기도 선거일 3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이를 위해 공천관리위를 선거일 6개월 전에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천개혁안을 최종 확정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당 지도부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국민참여 경선의 경우 동원 선거나 인지도 경쟁이 빚으로써 참신한 인사의 발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며 후유증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점도 개혁안의 걸림돌이다. 때문에 민주당의 경우 국민경선, 전략공천이 혼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개혁특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전략공천에서 지도부 몫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특히 안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차기 당권을 노리는 유력 주자 진영의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필기자 jkpark@kwangju.co.kr



李 대통령 30대기업 오찬회동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국내 30대 기업 총수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 등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창수 GS그룹회장, 조양호 한진그룹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민계식 현대중공업회장, 박용환 두산그룹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회장, 구본우 LG그룹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정준양 포스코회장, 이 대통령, 이근희 삼성전자회장, 이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 총수들에게 올해 5% 경제성장률과 3% 물가안정 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총선 입지자들 물밑 움직임 활발

의정 보고회·사무실 개소·얼굴 알리기...설 후 본격 행보 나설 듯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정치인 및 정치신인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설을 전후해 사실상 선거운동인 '의정보고회'를 장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차기 총선을 노리는 도전자들은 출마예정 지역 내에 이미 사무실을 개소했거나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등 물밑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다.

◇광주=동구는 재선 의원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선 의원에 맞서 조순대 총장을 역임한 양영일 전 국회의원인 '권도중'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MBC 기자 출신인 박현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개인 사무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갑은 초선인 조영택 의원과 정동태 전 국회의원, 송갑석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 한나라당 정용화 전 광주시장 후보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을은 5선인 김영진 의원의 대항마로 조영진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과 이상갑 변호사, 민주당 동당 오병운 전 사무총장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도 개인사무

실을 내고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는 장병완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지난해 7·28 보궐선거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이윤정 전 지역위원장인 '와신상담'하고 있고, 민주당 동당 광석의 의원(비례)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구 갑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486 정치인인 강기정 의원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을 역임한 최경환 김대중 평화센터 홍보실장과 감사출신인 김경진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고, 북구 을은 재선인 김재균 의원에 맞서 임내현 전 광주교감장과 최경주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광산 갑은 김동철 의원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전갈집 전 국회의원이 도전 가능성이 있고, 광산 을은 초선인 이용섭 의원에 맞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재선 전 광주시의원도 최근 포럼 사무실을 개소하는 등 광산을 출마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남=목포는 박지원 원내대표 외에는 현재까지 총선을 준비하는 인사는 눈에 띄지 않고 있고, 여수는 3선인 김성근 의원과 재선인 주승용 의원에 맞서 김종민 전 경찰총장, 배성기 전 산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10여 명이 거론된다.

순천은 서갑원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가운데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과 하신형 전 농림부 장관,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 허선 전 공정거래위 사무처장, 박상철

경기대 교수,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택호 변호사, 구희승 변호사, 이광수 전 민주당 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나주·화순은 최기인 의원의 4선 성공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배기운 전 국회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광양은 재선인 우윤근 의원과 안준태 부산교통공사사장, 정봉채 전 전남경찰청장, 이승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담양·곡성·구례는 3선인 김효석 의원에 맞서 고희석 전 곡성군수가 곡성읍에 사무실을 냈고, 국창군 전 의원인 김재국 의원에 맞서 임내현 전 광주교감과 최경주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고흥·보성=5선 중진의원인 박상천 의원에 맞서 장성민 전 의원이 40대 기수문을 펼치고 있고, 진흥군 전 고희군수, 장철호 변호사도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강진·영암은 3선인 유선호 의원 외에는 현재까지 뚜렷한 행보를 보이는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완도·진도는 초선인 김영록 의원을 비롯한 민병목 재경 해남중·고등학교 동문회장,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무안·신안은 초선인 이윤석 의원과 정치적 라이벌로 알려진 서삼석 무안군수의 출마 여부가 주목된다.

영광·함평·장성=이낙연 의원의 4선 성공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함평군수를 3번 역임한 이석형 전 군수가 유력한 도전자로 꼽히고 있다.

/*최경필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총선 전망

1년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총선은 광주·전남 정치지형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선(2012년 12월)을 8개월가량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야권연대' 가능성과 민주당 내 '현역 물갈이론'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연대'를 통해 광주·전남의 민주당 1당 체제에 변화가 일어날 지도 큰 관심거리다.

◇현역 물갈이 수준 관심=현재 광주·전남 국회의원 20명 중 3선 이상 중진은 8명. 이 중 5선이 2명이다. 일부 중진 의원은 관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지만, 일부는 노쇠화와 매너리즘으로 인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특히 일부 현역 의원들은 뒷날인 호남에서 '민주당' 간판에만 의존,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세대 교체...현역 물갈이 몇명이나 야권연대...민주당 독식 무너질까

는 유권자들의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능동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인물의 수혈을 통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광주와 전주에서 열린 민주당 당 개혁특위 공청회에서도 야권연대를 대비한 인물 영입과 세대교체, 현역의원 물갈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민주당 안팎에서 세대교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 천정배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물갈이론에 대해 "진지하게 듣고 있다"면서 "19대 총선 공천은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 하고, 세대교체와 물갈이도

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연대 성사되나=현재 광주·전남 국회의원 20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재'인 셈이다.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하면 내년 총선에도 민주당 텃밭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총선에서부터 야권연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일당체제에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구를 '양보'하는 것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연계된 문제에서 야권연대 과정에서 파열음도 예상된다. /*최경필기자 cki@kwangju.co.kr

들이 후보단일화를 이뤄내 전면적인 야권연대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 내년 총선에서 광주는 1~2곳 정도, 전남은 1곳 정도가 야권연대 성사 가능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일부 민노당 후보 등은 민주당의 '양보'를 예상하고,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지역구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구를 '양보'하는 것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연계된 문제에서 야권연대 과정에서 파열음도 예상된다. /*최경필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무안관광 직항 마지막 찬스

한겨울에 즐기는 정글투어 or 섬머크루즈

799,000 원 (단, 대인 소아 요금 동일)

포함사항 : 1급 산타페호텔 3박, 미팅&샌딩, 전일정식사 (호텔조식3회+호텔중식2회+특식2회+외부식2회) 현지유선 포함 (섬머크루즈 또는 정글리버보트) 불 포함 : 유류세 60\$, 기사·가이드팁 성인 30\$, 소아 10\$

판매날자 : **1월 26일 "한정 판매"**

특이사항 : 준특급 : 홀리데이호텔 급 10만원 추가, 특급 : 웨라호텔 급 20만원 추가 됩니다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식사
제 1	일	무	안	관	08:50 13:55	무안 국제공항 출발. [4시간 정도 소요, 시차는 1시간 바름] 광 아가나 국제공항 도착 입국/세관 신고후 공항 밖에서 현지 가이드 미팅. 전용차량에 탑승하여 호텔로 이동 및 투숙. 석식(후지메이칸그릴 - BBQ) 호텔 투숙.	고기나식 D: BBQ
제 2	일	광	전용차량		09:00 18:00	조식후 광 시내관광 시작. (사람의 정액, 파세오공원, 광정부청사, 아가나전망대, 스페인광장, 니미치힐) *중식(호텔 비치비에서 샌드키트 & 아이스티) 자유시간에 무동력 해양 스포츠 (카누, 카약, 스노클링)을 즐길수가 있습니다. 호텔유식 - 석식후 호텔 투숙.	B: 호텔식 L: 호텔식 D: 한 식
제 3	일	광			09:00 18:00	조식 후 섬머크루즈 또는 정글리버보트 택1 관광 *섬머크루즈: 낚시대는 파도를 가르며 물고기를 찾아 떠난다. 연인과 가족 모두 아름다운 바다에서 즐기는 즐거운 시간. 물놀이와 낚시에서 제공되는 잡피와 샌드키트, 카약, 스노클링, 다양한 체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글리버보트: 일본의 패잔병 요원이 갯간 숨어있었던 발포포에서 정글리버보트를 타고 정글탐험을 할수 있으며, 원주민들이 보여주는 코코넛쇼와 직접원주민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총치기 마세오 돌 중 택일 포함입니다. 단, 섬머크루즈는 오후 1시 20분, 정글리버보트는 오전 오후 택일 (단, 가이드에게 미리시간을 신청하세요) *중식(마기리타 - 스테이크) 석식 후 호텔투숙.	B: 호텔식 L: 스테이크 D: 한 식
제 4	일	무	안	관	09:00 12:00 15:35 19:20	조식 후 아가나비치 해안산책로 구경 및 해양스포츠카누, 카약 등 즐기 *중식(호텔 비치비에서 스테이크 & 아이스티) 가이드와 미팅 후 공항으로 이동 - 광 출발. 무안 국제공항 도착후 각자 해산.	B: 호텔식 L: 호텔식 D: 기나식

*상기 일정은 항공스케줄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문의 롯데JTB첨단점 첨단롯데마트 2F 062-973-9114
클럽모두 동광주홈플러스 B1 062-269-9363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 광고표시 등에 관한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필수 경비 포함 : 여행보험(해)의 1억원, 국내 5천만원, 관광진흥기금, 공항이용료, 안내원비용
2억 보증보험 가입(보통기간: 2010년 12월 7일~11년 12월 6일)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광주시 북구 두암동 575-1 홈플러스 동광주점 (주)클럽모두 해외여행업 등록 최소 출발 인원 : 2명 / 속수 : 2급호텔 이상 / 교통편 : 항공 및 버스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유류할증료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